



주간통일정세 2008-25(2008.06.16~06.2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8-25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訪北 시진핑 中부주석 면담(6/1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18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고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시진핑 동지와 그의 일행을 접견하셨다”고 보도
  - 방송은 시 부주석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면담에는 북측에서 6자회담을 지휘하고 있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오랜기간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활동한 ‘중국통’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하고 중국측에서는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배석

- **김정일, 잇단 경제부문 시찰(6/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9월제철종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김 위원장은 6월 13~14일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건설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등을 잇달아 방문
  -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김평해 노동당 평북도위원회 책임비서가 동행

#### 나. 정치 관련

- **北, 南 ‘3통합의’ 미이행으로 금강산·개성사업 위기 주장(6/22, 대변인 담화)**
  - 북한은 22일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남측의 현정부가 작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통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10·4 선언에 따른 모든 남북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결책동은 개성·금강산 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통신, 통행, 통관의 3통합의 이행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 년이 가까워오도록 어느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괴뢰 군부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
  - 그는 3통 합의와 관련, “지난해 10월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 때 남측이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군대가 동포애의 심정으로 대범하게 성사시켜 준 민족공동의 서약”이라며 ▲통행시간 오후 10시로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유무선 통신 확대 및 인터넷 허용 등



의 합의사항을 지적

- 이어 “괴뢰군부는 3통의 전반적인 이행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북남군(軍) 통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2월 중순까지 노폐화(노후화)된 군 통신의 정상운영대책을 먼저 세울 것이라고 담보한 문제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있다”고 주장
- 특히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3통합의 이행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볼 수 없다”고 강조, 이 사업의 중단 가능성을 경고
-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민족의 공리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대가 군사분계선을 터치고 군사적 요충지를 통째로 내놓는 대법한 조치를 위해준 것”이라고 설명

● 北, 북남관계 6·15 이후 최악 위기 주장(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남조선(남한) 호전 정권이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파괴되고,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6.15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이날 ‘군사적 우세론은 반민족적인 대결 전쟁론’ 제하의 개인 필명 논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군사적 우세론”을 내세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북남 대결시대의 괴뢰 집권자들이 동족을 화해와 단합의 상대가 아니라 ‘주적’으로 대하고 적대시 하면서 떠들어대던 북침전쟁론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난
- 또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는 군사적 대결과 전쟁의 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 “북남 대결시대의 낡은 논리와 자막 대기를 가지고 북남관계를 대한다면 어차피 대결을 격화시키게 되며, 전쟁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신문은 주장

● 北, 美 무역 자유화는 기만(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무역 자유화 광고는 기만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서방 열강들은 “전 세계적인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관세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면서 발전도상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무역규제 조치들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해 왔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쌀값 하락…청진·홍남 옥수수 배급(6/20,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에서 5월 1kg에 4천500원(북한돈)까지 치솟았던 쌀값이 6월 들어 2천원대로 떨어졌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0일 소식지



를 통해 주장

- 소식지는 6월 10일 현재 함경북도 회령, 청진과 강원도 원산, 평안북도 신의주, 자강도 강계, 평안남도 강서, 황해남도 해주 등지에서 쌀 값이 2천500원에서 2천700원대로 떨어졌으며 “이는 쌀값이 치솟자 국경지역의 밀수가 활발해진데다 중국 정부로부터 10만t의 (곡물) 수출허가를 받게 되면서 식량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 소식이 퍼진 것도 곡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
-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식량 가격이 2007년의 3배 이상이라 돈이 없는 주민들은 사먹기 힘들어 한다”며 “전반적으로 돈이 없는 농촌지역에서는 곡물가격 하락과 상관없이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식지는 주장

● **北탄광 수해복구 마무리, 석탄증산 독려(6/19,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2007년 여름 수해로 탄광들이 대거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던 북한이 복구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 짓고 ‘석탄 증산’을 독려, 조선중앙방송은 석탄공업성의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각지 탄광들에서 침수 갭 복구를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이는 과정에 처리된 물량은 170만m<sup>3</sup>에 달한다면서 이는 “수십만t의 석탄을 캐낼 수 있는 담보”이며 “한 개의 대규모 탄광에서 1년 간 생산할 수 있는 석탄량과 맞먹는 탄량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도
- 조선신보도 최근 “전국의 탄광들에서 증산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평안남도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사례를 소개

● **北내부자료, 식량문제 심각성 실태(6/18, 오늘의 북한소식)**

- 봄 농사철 ‘충공격전’에 들어가면서 ‘모두 다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의 농업실태와 관련한 ‘강연제강(강연자료)’을 하달해 “오늘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식량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좋은벗들’이 18일 보도

● **북한전역, 모내기 완료(6/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역의 이모작 앞그루(전작) 및 모판 지대를 제외한 경작지에서 모내기를 끝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경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6/18, 연합;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18일 ‘200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를 발표,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또 북한의 2007년 경제규모는 남한의 36분의 1로 2006년(35분의 1)에 비해 남북한간 격차가 다소 확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7분의 1로 2006년과 같음.

● ‘경제강국’ 건설 매진 촉구(6/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경제강국 건설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先軍)정치를 토대로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촉구
- 신문은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에서 기술 개진(개선)과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거듭 강조

● 北, 17~20일 싱가포르 IT박람회 참관단 파견(6/17, 조선신보)

- 북한이 17~20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2008 국제정보통신박람회’에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라. 군사 관련

● 北경비정 1척 한때 NLL 침범(6/22, 국방부)

- 북한 경비정 1척이 22일 오전 11시27분부터 약 30여 분간 서해 백령도 북쪽 북방한계선(NLL)을 2마일 가량 침범했다고 합참이 발표, 합참은 “북한 경비정이 NLL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비정은 우리 해군의 경고성 무선통신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발표, 올해 들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을 포함, 모두 6차례임.

● 美 군사도발에 만반의 대응태세(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미군의 주한 전방전투지휘소(OCPK) 설치 계획과 태평양 상공 미사일 요격실험을 비난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 호전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높은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단(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

● 北, 한·미 연합공군훈련 비난(6/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한·미 연합·합동 공군훈련이 16~20일 처음으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것과 관련해 평화 실현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

마. 사회·문화 관련

● 스포츠 도서, 올림픽 특수 인기몰이(6/2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2일 “체육출판사에서 최근에 출판한 체육과학 기술과 상식도서들이 체육인과 근로자, 청소년·학생들 속에



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

● 北, ‘혈액과 헌혈’ 도서 출판(6/22, 조선신보)

-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었던 북한이 국제기구의 협조를 받아 최근 ‘혈액과 급혈(헌혈)’이라는 도서를 출판해 주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홍보,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의학과학출판사가 발행한 이 도서에는 혈액의 기능과 역할, 혈액형의 분류, 수혈과 헌혈의 의미, 수혈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北, 캐나다 풍력에너지대회 참가(6/21, 조선신보)

- 북한이 풍력에너지 분야의 국제 교류·협조 확대를 위해 6월 24~26일 캐나다 킹스턴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풍력에너지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리강진(35) PIINTEC 부부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서 조선은 최근 풍력에너지(에너지) 개발이용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통보하고 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각국의 풍력관련 단체들과 교류·협조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갈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 ‘태권도 명가’ 황해북도선수단(6/20, 조선중앙통신)

- 황해북도 태권도선수단이 발족된 후 10년 동안 대내 경기에서 210여 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등 훌륭한 선수와 감독을 배출한 ‘실력있는 팀’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소개

● 국제복싱연맹, 평양서 기술 강습(6/19, 조선중앙통신)

- 국제복싱연맹(IBF)이 최근 평양체육관에서 북한의 권투감독과 전문가, 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 각 도(道) 체육기술협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기술 강습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AI 발생, 외신보도는 거짓말(6/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함경남도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는 한 외신의 보도내용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AP통신이 조선(북)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는 허위보도를 날렸다”며 “내각에서 현지의 수의방역기관들을 통해 직접 알아본 데 의하면 이 지역에서 새나 가금류들이 죽거나 사람이 사망한 것이 전혀 없고 역학상태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

● 아리랑공연 안내통역원, 2~3개 외국어 통역(6/19, 조선신보)

- 북한이 8월 초 공연에 들어가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기 위해 방북하는 외국인들을 안내할 여성 통역원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2~3개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아리랑공연 담당 여행사 직원은 “안내통역원들은 주로 20살부터 25살의 여성들이 맡아한다”면서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어 능력의 소유자들로, 보통 2~3개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

● **세계기상기구에 첨단장비 지원 요청(6/19,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담당자인 토키요시 토야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회견을 통해 북한이 여름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악천후에도 쉽게 고장 나지 않는 최신 기상관측 기계와 북한 전역에서 관측된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비 등 첨단장비를 요청했다고 밝힘.
- 토야 박사는 또 북한이 요청한 기상장비 목록에는 WMO가 올해 초 중국으로부터 기부받아 북한에 제공한 최신 위성영상 수신시스템을 지원하는 보완장비도 포함돼 있다면서 “WMO는 북한이 요청한 장비를 어떻게 지원할지 알아보고 있다”고 언급

● **중학생 거리밴드 인기(6/17, 조선신보)**

- 평양 평천구역의 봉지중학교(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30인 조 경음악단이 시민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음. 조선신보는 “평양에 경음악을 잘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봉지중학교는 작년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관현악부문에서 1등을 했다”며 “이 학교의 경음악 소조(동아리)는 국가적 명절과 기념일, 여러 계기에 시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경음악 공연을 펼쳐 관중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소개
- 이러한 재능을 갖춘 경음악 소조원들은 학교 졸업 후 국립민족예술단,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전문예술단체에 많이 선발되고 있으며 “소조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열성도 지극하다”며 “학부형들은 가정과 사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 **北강계 낮 최고 36도, 이상고온(6/16, 조선중앙TV)**

- 한반도 북단인 자강도 강계가 36.1도를 기록하고 평안북도 구장의 수은주는 36.9도까지 치솟는 등 16일 북한 일부 지역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北, 헌혈자·혈액 확보에 주력(6/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헌혈자 모집과 혈액 확보를 “국가의 중요 보건시책”으로 삼고 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북한 보건성과 세계보건기구(WHO),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



맹이 이날 ‘세계 헌혈의 날’(6.14)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면서 “조선(북한)에서는 자원 무보상 급혈자(헌혈자) 대열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개 가시화(6/22, 연합)

-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6자회담 일정과 관련,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며 신고서 제출과 거의 동시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기 위한 조치(의회통보)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적 상응조치가 뒤따른다고 소개
- 신고서 제출 시기와 관련, “구체적 일자 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주중에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 북한은 이어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착수와 비핵화 2단계의 사실상 마무리를 상징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벤트인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행사를 신고서 제출 후 하루 이틀 내에 진행할 예정
- 김 본부장은 6자 수석대표 회담 의제에 언급, “신고서 내용을 평가하고 어떻게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느냐 하는 검증 방법을 협의하게 될 것”이며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관련, 사용 후 연료봉 인출 속도를 가속화하고 남은 조치로서의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김 본부장은 이런 조치 후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7월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 北, 냉각탑폭파 5개국 언론사 초청(6/22, 연합)

- 북한은 조만간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했으며 그 장면을 전세계에 중계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 5개국 언론사를 초청했다고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발표
-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냉각탑 폭파 취재를 목적으로 5개국에서 각 1개 언론사를 상대로 방북을 초청했다”면서 “미국은 CNN이 초청됐으며 우리는 한 방송사가 초청됐다. 북한측이 6자회담 채널로 연락을 했으며 해당 방송사에 알려줬다”고 언급, 그는 또 “(냉각탑 폭파) 시기도 명시가 됐다”며 “취재 수락여부는 그 방송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



- 김 본부장은 이어 “오늘(22일) 중국을 방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

나. 북·미 관계

● 美, 대북 해상봉쇄 기도(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새로운 국제해협 질서를 세우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은 세계 주요 해협들을 통제 밑에 두고 해상수송과 무역, 군사작전 등에 이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해협봉쇄책동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우리 나라(북)에 대한 집단적 군사봉쇄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美, 北교향악단 방미공연에 긍정적(6/2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가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공연성사여부가 주목,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방미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용진 회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국무부에서는 일단 회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며 “(국무부측에서는) 만약 워싱턴 공연이 어렵다면 리치먼드나 볼티모어 등 워싱턴 외곽 지역에서 공연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자고 했다”고 전언
- 워싱턴 민주평통은 북한 유엔 대표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워싱턴 공연을 지난 2월 뉴욕필 교향악단의 평양 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

● 北, 라이스 미국무 방북 초청(6/19, 마이니치신문)

- 북핵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9일 보도

● 北, 美대선 흑백대결로 더욱 첨예해질 것(6/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대선 레이스를 이같이 ‘금권선거’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매도하면서 나름대로 ‘관전평’을 내놓음.
- 신문은 ‘월계관을 쟁탈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에서 다음 기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거 경쟁이 날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쟁을 “열기띤 승벽내기”로 표현, 북한에서 ‘승벽내기’는 ‘남과 겨뤄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일’을 뜻함.
- 노동신문은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를 각각 “하버드종합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흑인”, “미 해군 비행사 출신의 강경파”로 소개하고 양측이 “이라크 문제와 경제문제 등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을 뿐 대북정책이나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다. 북·중 관계

- **北직총 대표단 중국방문(6/2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중국을 방문하는 김성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직총 대표단이 21일 평양을 출발
- **중국민항대표단과 교통운수부 대표단,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대표단 귀환(6/19, 조선중앙통신)**
- **中시진핑, 김정일에 “방문성과 만족” 감사전문(6/19, 조선중앙통신)**
  - 6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내 “이번 방문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시진핑 부주석은 평양을 떠나면서 김정일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양형섭 부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이번 방북기간 “쌍방은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더욱 깊이하였으며 두 나라 사이의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촉진시켰다”고 언급
- **中 시진핑, 방북 일정마치고 평양 출발(6/19, 조선중앙통신)**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19일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전송을 받으며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시 부주석과 주즈신(朱之鑫<金밑에 金 2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부부장, 류홍차이(劉洪才) 대외연락부 부부장,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부장, 스즈홍(施芝鴻) 중국공산당 중앙위 정책연구실 부주임 등이 비행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시 부주석은 방북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각각 만났으며 양형섭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음.
- **北·中, 황해북도 웅진철광 공동개발(6/18, 연합뉴스)**
  - 중국의 복수 대북 소식통들은 18일 “중국 굴지의 마그네사이트 가공회사인 S그룹이 북한과 공동으로 서해합영회사를 설립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웅진군 장송리에 위치한 웅진철광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언, 양측이 설립한 서해합영회사는 자본금 규모가 3천600만 유로(약 570억원)로 1차로 철광개발에 주력하고 향후 1만5천kW급 화력발전소, 전용항만, 제철소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



● 로두철, 中민항총국 대표단 면담(6/17, 조선중앙통신)

-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리자샹(李家祥) 국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민항총국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민속합창단 합흥 공연(6/2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의 공연이 21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 합창단은 합창과 무용, 기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김풍기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규빈 함경남도 당위원회 비서, 문화예술부문 창작가·예술인들, 대학 교원·학생들이 공연을 관람

● 러시아, 北韓에 WFP통해 식량원조(6/18, 러시아외교부)

- 러시아 비상기획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식량 구호물자 지원에 나섰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18일 발표, 외교부는 “밀가루 2천860t이 6월 11일부터 북한으로 운송이 시작했으며 WFP를 통해 밀가루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언급

● 고창협동농장에서 농사지원 및 영농물자 전달(6/17, 조선중앙통신)

- 발레리 수히닌 대사를 포함한 주북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17일 평안남도 천리마군의 북·러 친선 고창협동농장에서 농사를 돕고 영농물자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마. 북·일 관계

●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방북(6/22, 조선중앙통신)

- 최인태 이바라키(茨城) 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과 김윤선 교토(京都) 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일행이 22일 평양 만수대를 찾아 김일성 동상에 참배

● 日, 과거청산 용단 촉구(6/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한반도 강점기 조선인 강제 연행 등 “과거 죄악”을 씻는 것이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며 과거 청산을 거듭 촉구
- 신문은 이날 ‘과거청산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세기를 넘겨오며 과거 우리나라에 대한 비법적인 군사적 강점시기 저지른 특대형 반인륜적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성실하고 공손하게) 인정,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끈질기게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



## 바. 기타외교 관계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의원대표단 방북(6/2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오스트리아 출신의 후버트 피르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담당 분과대표단이 21일 평양에 도착, 이날 비행장에는 리종혁 조선·유럽연합 친선의원단 위원장 등이 대표단을 환영
- **교향악단·공훈합창단 음악회 감상(6/20, 조선중앙통신)**
  - 국립교향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음악회가 20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음악회에는 평양 주재 외교관과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북한 체류 외국인 등이 초대받음.
- **영국 여왕 생일 기념 연회 개최(6/20, 조선중앙통신)**
  - 존 에버라드 주북 영국 대사가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82회 생일에 즈음해 연회를 마련, 이날 연회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 한철 문화성 부상,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초대
- **北·라오스 공동 공보위원회 구성 합의(6/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공보위원회와 라오스 공보·문화부가 6월 18일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공동 공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문화상인 강능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공보위원회 대표단과 라오스 주재 북한대사 등이, 라오스 측에서는 문깨오 올라분 공보·문화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
- **이탈리아, 北식량난 50만 유로 지원(6/20, 미국의소리방송)**
  - 이탈리아 정부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돕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50만 유로(미화 77만 달러, 약 7억9천여만원)를 제공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 이탈리아 외무부 산하 협력개발국 긴급지원 부서의 비비아나 와그너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WFP에 현금 50만 유로를 기부했다”고 언급, 그는 또 “이번에 지원된 50만 유로와는 별개로 2007년 이탈리아 정부가 WFP에 기부를 약속한 100만 유로 상당의 밀 1천300t이 현재 북한을 향하고 있다”며 6월 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리비아 北주재원들 친선노동(6/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리비아 경제협조사무소 대표와 사무소 관계자들이 18일 평양시 사동구역에 있는 북한·리비아 친선 장천협동농장에서 친선 노동을 실시



- **北 김영남, 英여왕에 생일 축전(6/17,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7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82회 생일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북한과 영국은 2000년 12월 수교했으며, 김 상임위원장은 2001년부터 해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생일 축전을 보내고 있음.
  
- **英축구협회, 北에 운동복 기증(6/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7일 “영국축구협회가 주북 영국대사관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에 축구운동복을 기증했다”며 “축구운동복은 팬츠, 팜복(트레이닝복), 바지를 비롯해 5종 600여벌”이라고 전함
  - 6월 12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증식에서 존 에버라드 주북 영국 대사는 “영국축구협회의 명의로 된 축구운동복을 조선(북)축구협회에 기증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
  
- **보츠와나 대사에 안희정 겸임(6/16, 조선중앙방송)**
  - 북한 안희정 대사가 6월 6일 보츠와나의 이안 카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 안 대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 잠비아 대사도 겸직 중

### 3. 대남정세

- **5월 남북교역 작년 동기 대비 14%증가(6/22, 통일부)**
  - 5월 남북간 교역액이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에 따르면 5월 남북교역액은 1억7천272만4천달러로 작년 5월 1억5천192만9천달러에 비해 13.7%, 올 4월 1억4천424만8천달러에 비해 19.7% 각각 증가
  - 이 기간 상업적 거래는 1억5천313만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 1억482만6천달러에 비해 4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 경협사업 관련 교역액이 8천945만4천달러를 기록, 작년 5월 4천86만8천달러의 배(118.9% 증가)가 넘어섬.
  - 반면 비상업적 거래는 1천959만4천달러로 작년 5월 4천710만3천달러에 비해 58.4% 감소했으며 특히 민간지원을 포함한 대북 지원액은 836만6천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4천643만8천달러의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5월 중 금강산 및 개성 관광객은 5만6천957명으로 전 달의 4만9천641명에 비해 14.7% 증가했으며 작년 5월 3만2천641명에 비해서는 무려 74.5% 늘어난 것으로 파악
  
- **北 축구 대표팀 도착(6/20, 연합뉴스)**
  -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최종전(22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대결을 펼치는 북한 축구대표팀이 19일 한국에 도착

- 김정훈 감독이 이끄는 북한 대표팀은 19일 오후 9시45분 중국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대표팀은 간판 공격수인 '아시아 루니' 정대세(가와사키)와 요르단과 홈·원정에서 혼자 세 골을 사냥했던 홍영조(베자니아 베오그라드) 등 주전급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적응훈련을 치르며 22일 열리는 남북대결을 준비

#### ● 금강산 면세점, 매출 신장(6/20, 연합)

- 금강산 면세점이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물품으로 남측 관광객에게 폭발적인 인기, 20일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금강산 온정각에 위치한 동관 면세점의 매출은 2007년에 월 평균 140만달러였는데 올해 들어 280만달러로 배 이상 증가

#### ● 북녘에 교과서용 종이 보내기 모금 운동(6/19, 연합)

-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는 19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북녘 교과서용 종이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개최, 전북겨레하나는 2006년 2억6천여만원, 2007년 2억9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교과서용 종이 총 700t을 구입해 북한에 보냄.

#### ● 금강산관광지구 안전점검 19~21일 실시(6/19, 통일부)

- 통일부는 19일 “남측 전문가 7명이 19~21일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이번 점검에서는 관광지구 내 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 금강산 관광지구 안전점검은 올해 들어 두번째 이뤄지는 것으로, 예년에는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이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자를 제외한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현대아산 관계자 등 전문가 7명만이 참여
-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년에 상·하반기 각 1번씩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진행할 방침

#### ● 美 한인선교회, 北라진에 종합병원 설립(6/19,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의 한인 기독교 선교단체인 '만나선교회'가 북한의 함경북도 라진에 신흥종합병원을 설립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 VOA에 따르면 6월 10일 개업한 이 병원은 환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 첨단 진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상주 의사 대부분은 미국에서 은퇴한 한국계 의사들로, 2~3개월씩 라진에 머무르면서 의료봉사를 할 계획이며 북한 의료진에 의술도 전수할 예정



● **굿네이버스, 北에 1억상당 식량지원(6/18, 연합)**

- 국제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는 18일 오전 각계 인사 14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김포공항에서 평양행 직항편을 통해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했으며, 북측에 1억원 상당의 식량 물자를 지원한다고 발표
- 방북 대표단은 굿네이버스와 구세군, 한국건강관리협회,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 및 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과 김충환(金忠環) 의원도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 길에 오름. 이들은 방북 기간 평안남도 남포시의 와우도병원 준공식에 참석하는 한편 굿네이버스가 2005년부터 건축물자를 지원해 신축한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의 편의시설과 탁아소, 마을회관, 유치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 **北, 6·15 존중시 과거불문 협력은 ‘김정일 뜻’(6/18,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인사가 6월 16일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폐막식에서 6·15,10·4선언을 실천하려는 사람과는 과거를 불문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음.
- 방북단에 포함됐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18일 “김영옥 6·15북측위 여성분과위 부위원장이 폐막식 대표연설에서 ‘과거에는 비록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도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6·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언

● **통일부, 북한인력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6/18, 연합)**

- 통일부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과의 경제 교류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북한 인력에 대한 경제 및 기술 교육 등을 담은 ‘북한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발표

● **올해 ‘8·15행사’ 남북 각각 개최(6/16, 연합)**

- 금강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남·북·해외측 공동위원장들은 16일, 올해 8·15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지 않고 각자 별도로 치르기로 결정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韓-美, 6자회담 일정 및 전략 논의(6/22)

-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22일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 회동을 갖고 차기 6자회담 개최 일정 및 회담 전략 등을 논의했음.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베이징에 도착,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임박한 가운데 핵 신고서 제출 이후의 일정 등을 논의했음.
- 김 본부장은 23일 오전 11시 중국 외교부에서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도 만나 6자회담의 일정을 비롯해 핵 신고서 제출 이후의 신고내용 평가, 향후 검증 및 모니터링 문제를 논의.
- 앞서 김 본부장은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에서 브리핑을 갖고 “냉각탑 폭파 취재를 위해 북한이 6자회담 나머지 5개국의 언론사 1곳씩을 초청했다”고 말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측과 조율이 매우 중요해 우 부부장과 회동을 갖기 위해 중국을 찾는다”고 말했음.

##### ●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개 ‘가시화’(6/22)

-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6자회담 일정과 관련,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며 신고서 제출과 거의 동시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기 위한 조치(의회통보)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적 상응조치가 뒤따른다고 소개했음. 그는 신고서 제출 시기와 관련, “구체적 일자 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주중에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
- 북한은 이어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착수와 비핵화 2단계의 사실상 마무리를 상징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벤트인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행사를 신고서 제출 후 하루 이틀 내에 진행.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장국 중국은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비핵화 3단계(핵폐기) 일정을 논의할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G8회의 일정을 마친 뒤 한국(28~29일), 중국(29~30일)을 잇달아 방문, 각국 외교장관들과 비핵화 3단계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



- “美, 北 HEU 관련 새 의문제기하는 첩보 확보”<WP>(6/21)
  - 미국이 1만8천페이지 분량의 북핵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고농축 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새 의문을 제기하는 첩보를 확보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 보도
  - 신문은 이날 익명의 정보 소식통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한 뒤 미 국무부 및 국가정보국장실 관계자들은 언급을 거부하고 있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이를 예들려 언급했다고 지적
  - 라이스 장관은 당시 연설에서 “우리가 (북핵 6자회담) 협상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우리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정보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면서 “이 정보는 북한과 협상하는 데 대한 회의론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日의 대북 ‘행동 대 행동’원칙은 근시안적”<조선일보>(6/21)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일관계 교착상태 자초하는 일본의 협상술, 행동 대 행동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일)협상이 결실을 맺자면 무엇보다 일본측이 근시안적인 협상술(행동 대 행동)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조(북)·일관계의 정상화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으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외교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 조선측의 적극적인 호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행동 대 행동’은 “조선과 미국 사이에 상정된 행동원칙”으로, “교전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전환”시키고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 “관철되어야 할 원칙”이라며, 그러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북·일관계는 “무슨 행동에 대한 대가로 이뤄져야 할 일이 아닐 것”이고 실제 그동안 북·일관계에서 이 원칙은 “효과를 본바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일본이 “납치문제에 관한 여론을 달래고 조선과 협상할 명분을 세우려” 6자회담의 행동 대 행동 원칙논리를 적용해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북조선”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며 일본 강경보수세력이 “과거청산과 국교정상화를 조선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로 슬쩍 바꾸고 이를 납치문제와 대치시키는 논리를 꾸몄”고 “조·일관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 외무당국이 동원한 수법도 거의 같은 논리를 따랐다”고 비판했다.
  
- “한·미, 6자회담서 北 핵신고 접수 추진”(6/21)
  - 한국과 미국이 이달 말께 북핵 6자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마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북한이 중국에 핵 신고서를 넘겨주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은 26일께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만 동의하면 6자 회담은 이르면 내주에 열릴 수 있어 보이지만 북한이 부정적이라면 회담 개최는 7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이 핵신고의 상응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면 미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빨리 6자회담을 열어 핵신고에 따른 검증문제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 힐 “핵신고서 제출 뒤 곧 6자회담 개최”(6/21)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가 제출된 뒤 빠른 시일내에 차기 6자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을 거쳐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6자회담 일정과 북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이날 오후 11시께 숙소인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 힐 차관보는 우 부부장과 “6자회담 개최 시기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이내란 말 외에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북핵 신고서가 제출된 뒤 곧바로 6자회담을 열어 곧바로 북핵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 라이스 28~29일 한국 방문(6/20)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 6자회담을 비롯해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19일 밝혔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라이스 장관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뒤 28~29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 북핵 6자회담 문제와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29~30일 이틀간에는 중국을 방문

#### ● 김 숙 “北냉각탑 폭파에 美인사 참석계획 없어”(6/20)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6자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한·미·일 3국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힌 뒤 “그러나 의장국인 중국도 있고 북한 의사도 중요하고 러시아와도 일정을 맞춰야 하니 (3국이)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조만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신고 직후에



이뤄질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행사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음.

● “북핵 협의 진전여부 중요 시기” <힐 차관보> (6/20)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20일 북핵문제와 관련, “6개국 그중에서도 의장국인 중국으로선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지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 6자회담 당사국인 한·미·일 3개국 수석 대표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그는 이날 낮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조만간 진행돼 협력이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NHK가 보도
-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고무라 외상을 만난 뒤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 26일께 핵신고서 제출”…라이스 방북여부 주목(6/20)

- 북한이 오는 26일께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북·미 양측은 북한이 26일에 핵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면 이를 전후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일정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은 핵 신고서 제출 직후인 27~28일께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한 바 있음.

● “한·미·일, 북핵신고에 핵무기는 추후 포함 용인” <아사히> (6/20)

- 북핵 6자회담의 한국, 미국, 일본 측 수석대표가 19일 도쿄에서 연 회담을 통해 북한이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프로그램 신고에서 핵무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일정 기간 내에 핵무기를 신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하자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
- 이 신문은 익명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 3개국 수석대표가 향후 논의 하게 될 비핵화 3단계에서 반드시 이를 신고한다는 약속을 북한 측 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핵무기 신고를 확실히 약속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 작성 등의 방법을 놓고 6자회담의 틀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 “내주 北 핵신고-美 테러지원국 해제” <RFA>(6/20)

- 다음주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했다. 이 방송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북 양측과 밀접한 소통을 갖고 있는 미국 외교전문가’의 언급을 인용, “다음 주가 사실상 북한 핵 결말을 이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 RFA는 “다음주에 북한이 핵신고를 완료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비핵화 2단계를 종결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인 핵폐기를 예견케 하는 상징적인 행사를 예견케하는 윤곽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냉각탑 폭파와 같은 이벤트가 임박했음을 시사

● 中-美 양자회동, 차기 6자회담 일정 논의(6/20)

- 중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양자 회동을 갖고 차기 6자회담 일정 등을 논의. 일본을 방문 중인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 6자회담 일정과 북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
- 힐 차관보는 우 부부장과 차기 6자회담의 개최시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북핵 신고서 제출 문제 및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을 논의

● 한-미-일 “6자회담 조속 재개에 긴밀 협력”(6/19)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19일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회동,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및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
- 3국 수석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조속한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핵 불능화 조치 및 경제, 에너지 지원 등 2단계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밝혔다.
- 3국 수석 대표들은 또 2단계 비핵화 이행조치 마무리 및 3단계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조속히 6자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일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6자회담 차원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조속히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미·일 도쿄서 북핵문제 논의(6/19)**

-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19일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 및 6자회담 재개 시기 등을 논의
- 3국 수석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6자회담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일본측 수석 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공동 브리핑에서 밝혔다.
- 이들은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및 일본의 대북 경제 제재 일부 해제 등 일련의 상황과 관련, 현 단계가 6자회담의 중요한 국면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말했다.

● **우다웨이, 6자회담 조만간 개최 시사(6/19)**

-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9일 차기 6자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임을 시사
- 우 부부장은 이날 외교부 프레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일정에 대해 “아직 당사국들이 협상중”이라면서 “6자회담은 생명력이 있으므로 최근의 일시적인 난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내비쳤다.

● **핵신고서 제출 임박...‘검증’에 이목집중(6/19)**

-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랫동안 지체됐던 북핵 6자회담도 가동 절차에 본격 돌입할 전망
-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18일 “이달 안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 연설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곧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柳외교 “북핵진전시 남북관계 발전여건도 조성”(6/19)**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국들 간의 관계 개선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건도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유 장관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외교협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유관국들 간의 관계 개선 과정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한·미 간 전략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동맹 현안의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



부는 미국과의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감과 유연성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北, 라이스 미국무 방북 초청”<마이니치>(6/19)

- 북핵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9일 보도
- 신문은 6자회담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이 라이스 장관의 방북을 관계 개선의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라이스 “北, 곧 핵신고서 제출할 것”(6/19)

- 북한이 당초 작년말까지로 합의됐던 핵프로그램 신고를 6개월째 미루고 있는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8일 북한이 곧 핵프로그램 관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모든 핵활동에 대해 신고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과거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 미국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북한의 핵신고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영변핵시설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 라이스 장관은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일본 교토(京都)를 방문할 예정이며, 워싱턴으로 돌아오기 전에 중국 베이징(北京)과 서울도 방문할 계획

● “美 글렌수정법 유보조항 1~2주내 마무리”<RFA>(6/18)

- 미국 의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실험 실시 국가에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을 금지한 ‘글렌수정법’에 유보조항을 두는 작업을 1~2주 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RFA는 “미 상원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상·하원에서 긴급 추경 예산안이 1~2주 안에 통과될 전망이라며 그 안에 글렌수정법 유보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RFA는 또 “당초 상원이 마련한 글렌수정법 유보 문구는 북핵 검증 대목과 북핵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증 조항이 빠져 있어 하원에 비해 다소 완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에 강경한 일부 하원 의원들이 상원의 유보조항에 반발해 진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
- 이에 대해 미 상원 외교소식통은 “늦어도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이전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 글렌수정법 유보조항도 곧바로 발효된다”고 말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 **부시 “北, 핵물질 공개후 폐기위해 美 등에 넘기길 기대”(6/17)**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한 핵물질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 미국 등에 넘겨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영국을 방문중인 부시 대통령은 이날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전세계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6자회담 뿐”이라고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은 이어 6자회담 진행상황과 관련,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을 지켜보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불능화하고 해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들이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한 것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미국 등에) 넘겨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들(북한)이 핵확산 활동에 대해서도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 미·북 관계

- **부시-김정일 ‘베이징올림픽 회동’ 성사되나(6/22)**
  - 오는 8월8일 개막하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한반도 정세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는 화려한 ‘외교이벤트’ 공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 당국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언론을 중심으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격 회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 일본의 아사히(朝日) 신문은 22일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간사장이 21일 기자들에게 최근 방북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 **美 “北과 유해발굴 당분간 재개않는다”<RFA>(6/21)**
  - 미국 국방부는 2005년 중단했던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군에 대한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당분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미 현지시간) 보도
  - 미 국방부는 이날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진 비공개 설명회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핵신고서를 제출하면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앞으로 6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지 아니면 다시 중단될 지를 예견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담당국의 멜린다 쿡 국장은 “6자회담의 전망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금하게 북한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했다가 6자회담이 다시 지지부진해지면 작업 중단과



재개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 “일단 유해발굴작업을 재개하면, 6자회담과는 별도로, 국방부 나름대로 조건을 달아 작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다. 중·북 관계

##### ● 김정일, 시진핑 면담…북핵 합의사항 없어(6/18)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8일 5년 후 중국의 대권을 이어받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만나 북핵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사항 발표는 없었음.
- 중국 신문과 방송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방북중인 시 부주석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북중관계 증진 방안, 베이징올림픽, 쓰촨(四川)대지진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
- 시 부주석은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최근 6자회담이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북핵 6자회담이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냈다”면서 “중국은 의장국인 만큼 북중 쌍방이 앞으로 우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답변했음.

##### ● 北김영남, 방북 中시진핑 만나(6/17)

- 차기 중국 국가주석에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17일 평양에 도착,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김 상임위원장이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시진핑 부주석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조중(북중) 친선관계는 공동의 재부”라면서 “조중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

##### ● 中 시진핑 부주석 평양 도착(6/17)

- 차기 중국 국가주석에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17일 평양에 도착.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해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시진핑이 1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 이날 공항에서는 북측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태중 당 부부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최배진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 고위 인사가 영접했음.



- 그는 도착연설문에서 “중·조(북)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두 나라 사이에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다.

### ● 시진핑 訪北과 북중관계 밀착(6/16)

- 5년 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뒤를 이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취임 이후 첫 해외방문 국가로 북한을 선택하고 17일부터 2박3일간 방북
-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선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83년 중국 방문을 연상케 하는 이번 방북은 미래 중국 최고지도부의 북한 지도부 상견례 형식이 강하지만 최근 빠르게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임.

## 라. 일·북 관계

### ● 日, 美에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신중 당부(6/19)

-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 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9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음.
- 그는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모든 핵 활동에 대해 신고하면 미국측이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해제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일본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 사이키 국장은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 방침 등 북일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납치 문제 진전을 위한 미국측의 지원을 당부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30개월미만’ 美정부 보증...머리·척수 수입금지(6/21)

- 한미 양국은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30개월미만 쇠고기 기업을 품질인증 방식으로 보증하기로 했음. 또 30개월미만이라도 안전성 논란이 큰 광우병위험물질(SRM) 가운데 머리뼈·뇌·눈 등 머리부분과 척수는 수출·수입하지 않기로 했음.
- 21일 미국 육류수입 업체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일(한국 시각) 끝난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 농무부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기로 합의했음.

- 우리 정부는 앞으로 수입된 미국 쇠고기 가운데 미국측 수출 검역증에 ‘한국 QSA(QSA for Korea)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라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할 방침임. 두 나라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머리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하기로 합의했음.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T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음. 내장 역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교역이 가능함.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기간과 관련해서는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개선)될 때 까지”라는 표현을 사용, 시한을 못박지 않았음.
- 내용을 부칙에 추가, 새 수입위생조건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의뢰(관보 게재 요청)할 전망

#### ● 韓美 쇠고기 협상 사실상 타결(6/20)

-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1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집중 협의한 끝에 19일 저녁(현지시간. 한국시간 20일 아침) ‘상호 만족할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통상장관 협상을 마치고 양국 정부 보고 및 추인과정에 들어갔음.
- 주미한국대사관은 이날 5차 장관급 협상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장관급회의가 종료됐다”면서 “양측은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이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음.
- 미 무역대표부(USTR)의 그레첸 하멜 부대변인도 이날 협상을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가 회담을 마쳤다”면서 “지난 금요일 이후 그들은 기술적인 문제와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음.
- 하멜 부대변인은 또 “금주에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뤘고, 상호 동의할 만한 길에 근접했다”면서 “김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가 각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상결과를) 협의하게 될 것이며 김 본부장은 오늘 서울로 돌아가지만 두 장관은 계속 연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 라이스 28~29일 한국 방문(6/20)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 6자회담을



비롯해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19일 밝혔음.

-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라이스 장관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뒤 28~29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 북핵 6자회담 문제와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29~30일 이틀간에는 중국을 방문함.

### ● **李대통령 “美, 한미FTA 비준할 것”(6/19)**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전망과 관련, “미국은 전 세계경제의 개방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FTA를 비준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세계 경제전망 및 한국 경제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민주당 대선후보의 한미 FTA 반대입장에 대해선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도 당선 전에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했으나 당선 후에는 열렬히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리아 사무총장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공유하는데 있어 OECD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

### ● **윤영관 前외교 “한미·한중관계는 질적으로 달라”(6/19)**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한미관계는 50년간 이어온 동맹으로 국가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관계”라면서 “16년간 지속해온 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 참여정부 첫 외교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이날 부산시의회 초청강연에서 “동반자관계를 동맹관계처럼 하고, 동맹관계를 동반자관계처럼 대할 경우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그 격과 관계에 맞게 평소에 잘 대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 윤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을 골라잡는 식의 외교는 안된다”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관계는 대한민국을 더욱 높게 쳐주는 이유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니다”고 주장. 또 “중국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국으로 가면,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그러면 중국은 한국을 오히려 가볍게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립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
- 그는 이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하고, 자원외교를 펴고 있는 러시아와는 신경을 써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 **<쇠고기 협상> 韓美 마무리 ‘답판’ 개시.. 타결 고비(6/19)**

- 한미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장관급 공식 협상이 18일 오후 6시30분(한국시간 19일 오전 7시30분)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시작됐음. 이날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쇠고기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수 시간 앞두고 시작된 것이어서 지난 13일 이후 옛새간 계속돼온 한미간 추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지 주목

### ● 오바마 “한미FTA, 현명한 협상 아니다”(6/18)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16일 한미자유 무역협정(FTA)을 ‘현명한 협상(smart deal)’이 아니라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뒤 처음으로 한미 FTA를 공개적으로 비판
- 오바마는 앞서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 달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를 ‘아주 결함있는 FTA’라고 비판 하면서 의회에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지 말고 재협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오바마는 이날 미시간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경쟁을 환영하지만, 미국의 경제정책이 강력하고 현명한 무역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음.
- 그는 한미 FTA를 언급, “한국이 수십만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면 서도 미국차의 한국 수출은 수천대로 계속 제한하도록 하는 협정은 현명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미 FTA를 비판했음.

### ● 한미공군, 군산서 합동훈련(6/17)

- 미국과 한국 공군은 17일 오후 전북 군산 제8전투비행단에서 F-16E 와 F-15K 전투기 10여 대가 참여한 맥스 썬더(MAX THUNDER) 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했음. 16~20일 진행되는 맥스 썬더 훈련은 오는 8월 미국 벨리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REDFLAG) 훈련에 참가하는 대구 공군기지의 11전투비행단 등의 사전훈련 성격을 띠고 있음. 한국 공군의 최신 전투기인 F-15K가 한반도 이외에 배치되는 것은 레드 플래그 훈련이 처음이라고 제8전투비행단 측은 설명
- 제8전투비행단은 “맥스 썬더 및 레드 플래그 훈련은 미국과 한국 공군이 합동으로 가상의 적을 격퇴하기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훈련은 군의 현대화와 지역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 ● “한미 쇠고기 문제, 양자간 무역협정의 한계 부각”<FT>(6/17)

-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가 중대 변수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다자간 무역협정에 비해 쉬워 보였던 양자간 협정에도 슬한 한계점들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
- 이론적으로는 150여개국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반의 자유무역 협정보다 양자간 협정이 쉬워 보이지만, 협상에 나선 국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경제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도출되면서 양자간 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



- 미국 정부가 '경쟁적 자유화'라는 구호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어떤 상대국에 대해서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특정 업계의 반발이나 정치적 현안 때문에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마저 생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

● 한미 '쇠고기해법' 협조 공감...“기술적협 의 남아”(6/16)

-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장관급 추가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 도출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16일 밝혔다.
-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통상장관은 13~14일 워싱턴에서 30개월령 이하 미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벌였으며 양측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양 측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 <쇠고기협상> 韓美 추가협상 잠정 중단..외교채널로 계속 협의키로 (6/16)

- 한국과 미국 양국은 지난 13~14일 워싱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집중 벌인 뒤 당초 예정됐던 16일의 세번째 협상을 일단 중단하고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키로 했음. 이에 따라 한국 정부 대표단은 15일 오후 협상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으며 한·미 양국은 시간을 갖고 외교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주미한국대사관은 밝혔다.
-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통상장관은 13~14일 양일 간 워싱턴에서 30개월령 이하 미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벌였으며, 양측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미·일 관계

● 日, 美에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신중 당부(6/19)

-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 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9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음.
- 그는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모든 핵 활동에 대해 신고하면 미국측이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해제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일본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 사이키 국장은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 방침 등 북일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납치 문제 진전을 위한 미국측의 지원을 당부했음.

#### 다. 중·일 관계

##### ● “중·일, 동중국해 아스나로 가스전 개발 포기”(6/20)

-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와 관련, 양측이 아스나로(翌檜.중국명 룡징<龍井>) 가스전을 공동개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모두 이 가스전의 단독 개발도 하지 않기로 했음.
- 이는 아스나로 가스전이 한국과 중국간 경계의 기준이 되는 중간선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에 근접해 있어서 이를 개발할 경우 한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한중 중간선을 걸치고 있는데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까지 넓게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음.
- 양국 공동, 또는 단독으로라도 이 가스전을 개발할 경우 한국이 “자원을 뺏아간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국은 일련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 협상에 한국은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아스나로 가스전의 개발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18일 정식 발표한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중일 정부간 합의에서는 아스나로가 공동개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스나로 남측 해역이 공동개발 대상으로 발표된 바 있음.

#### 라. 기타

##### ● 라오스, 한국민 단기비자 면제키로(6/19)

- 부아손 부파방 라오스 총리는 19일 “한국 관광객과 투자자들의 라오스 입국시 편의제공을 위해 한국민에 대해 15일 이하 단기비자를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방한중인 부아손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한-라오스 직항노선 개설, 한국기업의 투자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라오스 방문 초청의사를 한 총리에게 전달했음.
- 양국 총리는 또 이날 회담에서 경제·통상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했음.



### [참고 1] 美 쇠고기 협상관련 일지(6/20)

(서울=연합뉴스) 주중국 기자 = 한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이 마라톤 회의 끝에 20일 타결.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까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5차례에 걸친 장관급 추가협상을 벌여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관련 일지.

- ▲ 2003.12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 ▲ 2003.12.27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 ▲ 2005. 2.28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 ▲ 2005. 5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 ▲ 2005. 6.10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 ▲ 2005.12.15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쇠고기 협상 착수 공식 발언
- ▲ 2006. 9. 8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 ▲ 2006.10.30 미국산 쇠고기 9t 수입
- ▲ 2006.11.24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뱀조각 발견, 전량 반송.폐기.
- ▲ 2007. 3.5~6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
- ▲ 2007. 4.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 2007. 4.27 미국 쇠고기 6.4t 검역통과
- ▲ 2007. 5.22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 ▲ 2007. 5.28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 ▲ 2007. 5.30 미 쇠고기서 갈비발견
- ▲ 2007. 6. 4 미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 ▲ 2007. 6. 8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 ▲ 2007. 7.13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개시
- ▲ 2007. 7.25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 ▲ 2007. 8. 1 미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 ▲ 2007. 8. 2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
- ▲ 2007. 8. 2 미국,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요청
- ▲ 2007. 8.24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중단 해제. 수입 재개
- ▲ 2007.10. 5 미 쇠고기서 등뼈 발견. 검역 전면 중단
- ▲ 2007.10. 5 정부, 미국에 소갈비 개방. SRM.내장은 불허 방침
- ▲ 2007.10.12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 협상 종료. 합의 못해
- ▲ 2008. 3. 5 미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 ▲ 2008. 4.11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 ▲ 2008. 4.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령제한 단계 해제



- ▲ 2008. 4.28 야 3당, 쇠고기 상임위 청문회 개최 합의
- ▲ 2008. 5. 2 ‘미 쇠고기 수입 반대’ 1차 촛불집회
- ▲ 2008. 5. 2 정부 ‘광우병 괴담’ 해명 관계부처 기자회견
- ▲ 2008. 5. 6 당정, 쇠고기 원산지표시 확대 추진
- ▲ 2008. 5. 7 국회 농해수위 미 쇠고기 수입 청문회. 야당 재협상 요구
- ▲ 2008. 5. 7 농림장관 “미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중단”
- ▲ 2008. 5. 8 한승수 총리 대국민담화. 상황 발생시 협정개정 요구키로
- ▲ 2008. 5. 9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전국 각지로 확산
- ▲ 2008. 5.12 美쇠고기 현지 점검단 출국
- ▲ 2008. 5.13 수전 슈워브 USTR 대표 우리정부 방침 수용. 광우병 발생시 GATT 규정따른 검역주권 보장
- ▲ 2008. 5.13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 FTA 청문회
- ▲ 2008. 5.14 농림장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7~10일 연기
- ▲ 2008. 5.16 서울시교육청, 촛불문화제 현장 학생지도 지시
- ▲ 2008. 5.17 ‘미 쇠고기 반대’ 집회 전국 36곳서 1만6천명 참가
- ▲ 2008. 5.20 한·미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 합의 발표
- ▲ 2008. 5.22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파문 관련 사과 담화문 발표
- ▲ 2008. 5.23 정부, 미 쇠고기 관련 온라인 광고 중단
- ▲ 2008. 5.23 정운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 ▲ 2008. 5.26 美쇠고기 현지 점검단 입국
- ▲ 2008. 5.27 경찰 촛불 집회 주최자 10명 소환
- ▲ 2008. 5.29 정부, 美 쇠고기 고시 발표
- ▲ 2008. 6. 2 장관 고시 인쇄. 한나라당 요구로 제본 중단.
- ▲ 2008. 6. 3 정부, ‘30개월이상’ 수입금지 자율규제방식 추진
- ▲ 2008. 6. 5 ‘美 쇠고기 고시 무효’ 10만명 헌법소원
- ▲ 2008. 6. 5 농식품부 “30개월 이상 수입방지장치 강구”
- ▲ 2008. 6. 6 대통령실장·청와대 수석 일괄사의 표명
- ▲ 2008. 6. 7 부시 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
- ▲ 2008. 6. 9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미국 방문단 출국
- ▲ 2008. 6.10 내각 일괄사의 표명
- ▲ 2008. 6.10 최대규모 인파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 ▲ 2008. 6.11 수입육협의회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업계 자율결의 발표 보류
- ▲ 2008. 6. 1 미 농무장관, 쇠고기 반대 움직임 ‘정치적 배후’ 있다 주장
- ▲ 2008. 6.12 미 농무부 대변인, 재협상 불가 원칙 천명
- ▲ 2008. 6.12 정부, 미국과 추가협상 방침 발표
- ▲ 2008. 6.13 (현지시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워싱턴서 장관급 1차 협의
- ▲ 2008. 6.14 (현지시각) 워싱턴 장관급 2차 협의



- ▲ 2008. 6.15 이 대통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못들어온다” 발언
- ▲ 2008. 6.15 (현지시각) 김종훈 본부장 급거 귀국하려다 미 측에서 만류, 협상 연장
- ▲ 2008. 6.16 (현지시각) 김종훈-슈워브 비공식접촉. 美 수정안 제시
- ▲ 2008. 6.17 3차 장관급협상과 실무협상 등 2단계 협상 진행. 결론 못내
- ▲ 2008. 6.1 오바마 연설 “한미FTA, 현명한 협상 아니다”
- ▲ 2008. 6.19 4차 장관급 협상. 원칙에는 합의·기술적 문제 남아
- ▲ 2008. 6.19 이명박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추가협상 이해 당부”
- ▲ 2008. 6.20 (현지 시각으로는 19일) 5차 장관급 협상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

\* 출처(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_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5%9c%eb%af%b8&contents\\_id=AKR20080620001500002&search=1](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_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5%9c%eb%af%b8&contents_id=AKR20080620001500002&search=1)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